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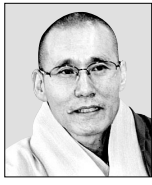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식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은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창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추석맞이 독거어르신 돌기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추석을 맞아 9월 23일 오후 2시 관내에 백미 20kg 100포를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시월 국화향기 나눔전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10월 14일 조계사 일대에서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개최한다.



제5회 행복나눔바자회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9~11일 봉은사 일대에서 정도마을 요양원 후원기를 마련 제5회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10월 4일 경내 반야전에서 '원효와 요석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2)395-9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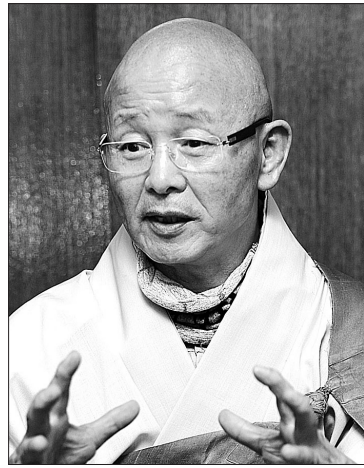


고판화박물관 '인쇄문화의 꽃...'전
한선학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한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전을 고판화박물관에서 10월 30일까지 개최한다.

“대각회 특별교구화 반드시 이룰 것”

혜충 스님 9월 13일 대각회 16대 이사장 취임

(재)조계종 대각회 1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혜충 스님(前포교위원장·사진)이 대각회가 종단 특별교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대각회는 9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제15~16대 이사장·법안정사·대각정사 주지 이·취임식'을 열고 16대 재단 이사장 혜충 스님의 공식적 취임을 알렸다.



용성 스님 대각사상 선양위원
종로 대각사 성역화 불사 추진
재단 스님·신도 수행 정진 지원

이어 "용성 스님이 계셔서 후학들이 재단을 만들 수 있었다. 법안정사 역시 효경 스님이 창건해 여러 스님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여법한 도심 수행 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사부대중 덕분이다. 앞으로 3년 간 재단, 사찰 스님과 신도들을 모시고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임 이사장 도업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새 이사장 스님과 함께 재단, 사찰 사부대중이 화합해 수행 정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간 함께 노력해준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혜충 스님 역시 도업 스님의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신도들은 화환을 통해 고마움을 표했다.

취임식 이후 별도로 가진 차담에서 신임 이사장 혜충 스님은 용성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종로 대각사를 성역화하는 방안을 내놴. 대각사는 1911년 용성 스님이 창건해 일반인을 위한 대각일요학교와 선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근대화 면면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이다.

혜충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운동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곳이 필요하다"면서 "용성 스님이 창건한 대각사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각사 성역화 불사가 이뤄져야 한다. 임기 중 대각사를 성역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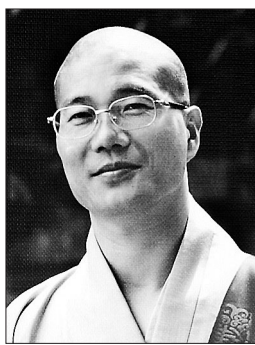
대각회 특별교구화에 대해서는 "대각회와 종단의 약속 유예기간이 1년여가 남았다"면서 "유예기간 안에 종회의원 2석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저갯거리 포교 계속 이어 나가고자”

개원 10돌 맞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어느덧 개원 10년을 맞았습니다. 누구나 오는 편한 도량을 만들고자 지역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갈현동 중앙역촌 시장에 자리를 잡고 저갯거리 포교로 서민들과 함께해 온 열린선원(원장 법현·사진)이 9월 12일 개원 10돌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삼천사 화주 성운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 이재오·이미경 국회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사를 전한다. 그동안 꾸준한 법회와 강좌를 통해 포교를 지속해 왔다. 그동안 매년 2회 이상의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불교강좌를 해왔다. 그리고 갈현동 복지 두레위원, 공동체 복원 추진 위원회 등을 역임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의 열린선원을 있게 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스님은 ‘선교방편 연구소’를 설립해 불교의 학문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수 한글 법요집을 제작해 불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또한 한뼘 시주불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위한 새 도량 마련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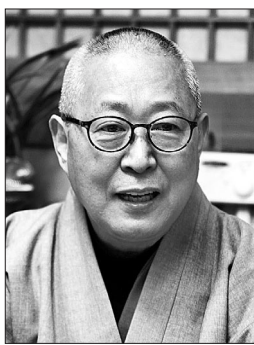
한편, 열린선원은 지역 저소득계층 100명을 초대, 추석맞이 만발공양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실시한다. 이 음식은 열린선원 개원 10돌을 기념해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이 기부했다.

정혜숙 기자

“세계인 가슴 속 전쟁 아픔 치유”

6·25 참전국서 공연하는 선암 영산재보존회 회장

태고종 영산재보존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국을 순회하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봉행한다.



영산재보존회장 선암 스님(사진)은 9월 16일 서울 수송동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램인트라 마을에서 참전 태국군 영령을 추모하는 영산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램인트라 마을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모여사는 마을로 한국전쟁참용사 위령탑이 있는 곳이다. 이번 태국 영산재 시연에는 영산재보존회 스님 20여명과 신도 30여명이 참가하며 참전용사 유족들에게 감사패와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선암 스님은 “태국은 불교국가이기에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정했다. 1988년 태국 세계민족예술제에서 영산재 공연을 펼쳤을 때 많은 태국국민들이 우리의 불교의식과 의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많은이들에게 남방불교의 스님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이번 태국 시연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을 매년 1개국씩 방문할 예정이다.

선암 스님은 “현충일의 경우 국내에서 영산재를 시연하고, 하반기에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 2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개최

9월 16일 취영루에서... 보은 스님·희상 스님 수상



제 2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16일 강남구 논현동 취영루에서 열렸다. 이날 행원문화재단은 학술상 수상자 중앙승가대 교수 보은 스님과 예술상 수상자 희상 스님(유연선원 주지)에게 각각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학술상 수상자 보은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불교문화 석사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원전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경불사에 매진해 왔다. <근본실질체유부필추비나야> 20권을 필두로 <근본실질체유부백일갈매> 10권을 번역했다. 현재까지 40여권에 이르는 울장에 대한 역경에 전념하고 있다.

보은 스님은 “계율은 스님이 살아있을 때 지켜야 할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예술상 수상자 희상 스님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해 독일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8년 동안 회화, 설치작업등을 해온 스님은 한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쳤다. 희상 스님은 “이웃을 위해 환원하고자 하는 행원문화상의 의미를 알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된다. 앞으로 예술을 통해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원문화재단 주영은 이사장을 비롯해 행원문화상 심사위원인 현대불교신문사 최정희 편집이사, 불교평론 홍사성 주간, 하춘성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스님들이 불교국가 직접 도와요”

국제구호단체총연합, 캄보디아 캄푸치아 고아원 후원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캄보디아 제8차봉사단(총재 지암)과 글로벌 나눔승가회는 9월 4~7일 캄보디아 씨엠티프 외곽지역인 살라반도반달꼬마 캄푸치아 고아원(원장 문보란)을 방문, 사랑의 쌀 및 의료, 생활 용품 등을 전달했다.

또한 이 두 단체는 메체아만돌 고아원 원생 44명과 한국 염마아빠 맺어주기 프로그램 후원협약도 맺었다. 이외에도 원생 숙소, 교육시설, 우물 등을 향후 지원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군승 하안거 및 수련회 성료



조계종 군중교구장(교구장 정우)은 지난 9월 8~10일 2박 3일간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불기 2559년 하계 군승 안거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군승 안거는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140여 현역군승과 60여 예비군승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은 입재식 법에서 “군포교에 진력하는 군승들과 군포교의 원력을 세운 예비군승들이 동참해 기쁘다”며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함께 동사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흥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달마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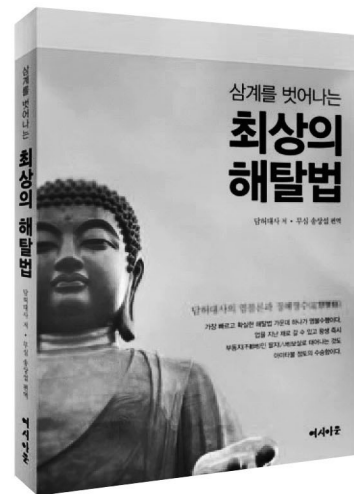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물목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가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갈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曇虛, 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은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五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맥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미타(唵)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두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보장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갈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류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論), 번역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도불사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물(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